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

5·18 민주항쟁 41주년 기념식이 지난주에 있었다. 그 참혹했던 살상의 참극이 벌어졌던 때가 엇그제만 같은데 벌써 40년을 훌쩍 넘었으니, 세월은 그렇게 흐르고만 있었다. 30대 후반의 팔팔하던 고등학교 교사이던 나는 우리 나이로 80에 이르고, 백발이 현연 노인의 처량한 모습으로 남았다. 포악한 계엄군의 조준사격으로 고3의 소년 전영진 열사가 숨진 지도 40년이 넘었다. 아침부터 주룩주룩 비가 내리던 지난 5월 15일, 그 날은 하필이면 스승의 날이기도 했다. 이른 아침 서울에서 기차로 광주에 도착하여 열사의 아비님 전계량 선생을 뵈고 우리는 모처럼 뜨겁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고 점심을 함께하면서 막걸리를 몇 잔 마셨다. 우리는 손목을 붙잡고 차에 올라 5·18 국립묘지에 있는 전 열사의 묘소 앞에 꽃바구니를 바치고 고개를 숙여 묵념을 올렸다. 우리들의 곁에는 그날 전 열사가 함께 투쟁했던 친구 두 명과 후배 한 사람이 나란히 있다. 이렇게 간단한 묵념의 추모 의식을 위해 왜 그렇게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는가. 살아남은 제자들이야 잘 가르쳤든 못 가르쳤든, 특별히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생명을 잃

전영진 열사를 추모하며

어버린 뒤라면, 어떻게 가르쳤기에 죽어 가고 말았던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1979년 혹독한 독재의 유신 말기. 숨 막히던 시절에 광주 대동고 영어 교사로 2학년이던 전 열사의 학급을 포함해 네 개 학급의 학생들과 수업을 했다. 그때 내가 들어가던 네 개 학급의 학생들만 운동장에 모여 보충수업 폐지와 교련 반대 데모를 감행했다. 그날이 10월 26일. 그때 데모 주동 학생들은 모두 연행되어 밤샘 수사를 받았고 모든 것을 내가 시켜서 일어난 사건으로 수사를 마치고 아침이면 나를 연행해 조사하러던 참이었다. 한데 새벽부터 방송에는 장송곡이 울리면서 대통령의 유고! 유고!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학생들도 풀려나고 나도 연행을 면한 채 사건이 끝날 수 있었다. 다음해가 1980년. 5·18이 광주에서 일어났다. 대동고 독서회에서 활동하던 고3의 전영진 열사는 21일 도청 앞에서 투쟁하던 중 조준사격으로 생명을 잃고 말았다. 27일 무자비한 학살로 도청에 시체만 쌓이면서 광주항쟁은 피투성이 속에 마감되었다. 항쟁의 주모자로 나를 수배했다는 소식을 듣자 나는 죽음을 면하려 몸을 숨기고 시국을 관망했다.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더 이상 광주에서의 은신이 어렵자 6월5일에 나는 서울로 도망치고 말았다. 광주에 없던 내가 전 열사의 추모할 방법은 없었다. 7개월을 은신하다 끝내 체포되어 광주교도소에서 징역을 살다 출소할 때가 82년 3월. 공포에 휩싸여 있던 우리는 전 열사의 묘소를 찾아가 엄두도 못 냈다. 그 후로

야 살아 있던 제자들이랑 만나면서 항쟁의 비극을 이야기했지만, 죽어 버린 전 열사에게는 해야 할 말을 잃고 있었다. "행여라도 내가 수업시간에 말했던 내용이 자극이 되어 그런 용감한 투쟁을 하다 목숨까지 잃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의 부담 때문이었다. 그 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수없이 국립묘지를 방문해도 전 열사의 묘소 앞에는 설 용기를 내지 못했다. 말이 없는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를 짐작할 수가 없어서였다. 마침내 지난해 가을 열사의 아비님을 우연히 만나, 흔연스럽게 많은 민주투사를 양성한 훌륭한 교사라고 포용해주는 관용에 힘입어 바로 전열사 빈소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미루다가 41주년에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찾아갈 수 없는 제자에게 찾아갈 수 있는 스승이 추모하라 가겠다는 마음으로 끝내 묘소 앞에 설 수 있었다. "삼가 열사의 영혼을 위로하며 간절한 추모의 정을 표하노라!" 이렇게 추모의 뜻을 전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의식화시켜 반정부 투쟁의 대열에 서게 했다면서 불온 교사로 낙인찍혔던 나의 허물도 벗어내고 싶었다. 전 열사는 목숨을 바쳐 송고한 의훈으로 민주주의를 지켜 주고 있다. 그의 동기동창은 집권여당의 대표도 되고 후배에서는 검찰총장도 나오는 등 큰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불온 교사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열사의 묘소 앞에서 추모의 정을 표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열사의 영원한 안식을 빌고 또 빌 뿐이다. 국가폭력으로 양민을 학살하는 '야만'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기 고

‘어느 봄날의 약속’



박용수
수필가·광주 동신고 교사

5월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을 펴고 마음껏 웃고 싶다. 산천은 여전히 너무 맑고 푸르러 크게 한번 목청껏 울고 싶어지는 5월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사랑해야 할 것, 꼭 지켜야 할 것, 받아내야 할 것과 바쳐야 할 것이 분명한 5월.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 공연, '2021 애꾸눈 광대-어느 봄날의 약속'은 41년 전 봄날 이야기다. 아니 남아 있는 자들이 누군가에게는 꼭 받아내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반드시 지키고 바쳐야 할 이야기다. 80년 5월 전남도청에서 가난하고 순수한 고등학생과 젊은이들이 왜 군부에 맞서 싸웠고 어떻게 장렬하게 스러져 갔는가를 보여 준다. 눈보다 더 희고 꽃보다 더 붉은 이들의 고결한 정신과 뜨거운 사랑을 그리고 있다. 시사각각 계엄군이 조여 오는 극한 상황에서 웃음

을 잃지 않고 의연하게 맞서 싸우는 그들의 신념과 용기를 통해 그들은 왜 그곳에서 최후까지 남을 수밖에 없었고,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게 해 준다. 후반부는 최후 항쟁이었던 전남도청 지하실의 다이내마이트와 관련된 문운동 지도자, 고등학생 시민군 안종팔-문재학 군 이야기를 통해 시민군들의 고뇌와 사랑을 담아내고 있다. 의견의 차이는 있어도 싸울 때는 분명했던 그들이 마지막 항쟁 직전 다짐한 약속, 최후의 보루 도청을 지키다가 죽으면 혼로나마 돌아와 서로 만나자는 약속은, 어찌 보면 빗진 우리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은 아니겠느냐고 되묻는 것 같다. "꼭도들에게 알린다.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됐다. 투항하라. 투항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투항하라." 탱크와 헬리콥터, M60 기관총으로 무장한 특수 훈련을 받은 특전사, 공수부대원들의 협박에도 의연히 맞설 수 있는 정신과 용기. "시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과 맞서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힘은 잊히지 않으리라는, 역사는 끝내 기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

기 때문일 것이다. 5월이 되면 되살아난다. 건물에서 나무에서 도로에서 벚에서 땅과 하늘에서 되살아나는 것들, 그럼에도 우린 깎뿔깎뿔 맞고 살아간다. 잊고 살아갈수록 우린 더 많은 빛을 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5월, 치열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도 연극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은 사랑이다. 화염과 총성이 난무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삶보다 정의를, 분노보다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간 광주 사람들 이야기,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다. 5·18 때 전남도청을 지키다 붙잡혀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김영철 열사의 딸 연우 씨의 죽은 자를 다시 불러내는 장면에서의 안무는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고 서늘하다. 망월 묘지에 가면 그들이 이우처럼 가족처럼 안장되어 있다.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은 아직도 멀고 멀었다. 짐승보다 못한 전두환과 그 잔당들이 사죄하고 용서를 빌 용기조차 없이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훌쩍 41년이 지나가고 있다. 아아 그들 모습이 잊히는 게 두려운가 보다. 애꾸눈 광대는 그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여태 외눈으로 이 빛을, 이 삶을 붙잡고 있지 않나 싶다.

기 고

삶이라는 문제, 역사에서 찾은 답



박순희
동신대 기초교양대학 교수

최근 교양 수업 시간에 '지금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학생들은 현재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 여행, 아르바이트, 인싸템(인사이드 아이템) 사기 등을 꼽았는데, 한 학생이 문득 "코인 사기"라고 대답하였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의 한 종류에 불과함을 알지 못했던 나는 "비트코인?"하고 되물음으로써 가상화폐에 대한 나의 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았다. 그 학생은 그냥 "네 뭐..." 하며 교수의 무식함을 담담한 목인으로 받아 주었다. 순간 나의 되물음이 잘못됐음을 직감했지만 예상과 다른 새로운 대답에 "정글구나, 요즘, 비트코인이 뜨고 있지?" 하며 궁금도 질문도 아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였다. 그 학생의 대답이 오래도록 내 뇌리에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학생의 대답이 신선했기 때문도 아니고 요즘 뜨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 때문도 아니었다. 근래 들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발표에 전 문가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가세하여 갑론을박하며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에 20대

와 30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집 하나 소유할 수 없다는 젊은 세대의 불안감 때문이 아닌지 염려하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젊은 세대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까? 젊은 세대들은 이미 물려줄 것이 별로 남지 않은 기성세대가 전하는 조언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이라는 직업 정신을 발휘하여 물어올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러한 물음의 대답을 역사 속 인물들의 삶 속에서 찾고 싶다. 살아가는 내내 불확실한 미래에 선택과 결정을 내렸을 과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길을 결정할 수 있고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인물의 반열에 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흔들리지 않고 끈기있게 자신만의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황희 정승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살다가 이원익 선생의 삶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한다. 이원익 선생은 스물두 살에 과거에 급제해서 명종, 선조, 광해군, 인조 네 임금 밑에서 무려 여섯 차례나 영의정을 지냈던 인물이다. 그런데도 이원익은 오두막에서 일반 백성들과 다름없이 살았다고 한다. 이익에 휘둘리지 않았으며 백성들을 위해 대동법을 제안했고 모함에 빠진 이순신을 구명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가난했고 끼니를 걱정하였으며 중인들이 하는 일을 했음에도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한다. 또 순천에 가면 팔마체육관, 팔마초등학교, 팔마종합운동장, 팔마야구장 등 '팔마'로 시작하는 시설들이 많

다. 순천 사람들이 지명뿐 아니라 많은 시설물 및 영업 점에도 팔마라는 이름을 붙여 부른 것을 보면, 이 지역 사람들의 가슴에 팔마의 역사가 얼마나 자긍심으로 남아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팔마는 고려시대 순천에서 일한 최석이라는 사또가 임기가 끝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 전별금으로 순천 사람들이 마련해 준(마련해 주어야 했다) 여덟 필의 말을 그동안 어미 말이 난 새끼 말을 포함하여 아홉 마리로 돌려주었는데, 이에 감동한 순천 사람들이 최석 공덕비(팔마비)를 세운 데서 유래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이 팔마비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며 순천은 정령의 도시로 불렸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최석을 존경했고 대단한 인물로 여기고 따라 배우자고 외쳤다고 한다. 최석이라고 왜 욕심이 없었겠는가. 당시만 해도 말 한 필이 지금의 자동차 한 대 값이었다고 하니 그 가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어쩌면 말 여덟 필은 지금의 20~30대 젊은이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비트코인 여덟 개의 값에 해당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인물 중에는 자기 중심을 잡고 살기 위해 노력하며 떳떳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결정에 자긍심을 가지고 떳떳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만의 길을 걸어 나간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 존재를 긍정하고 내가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가진다. 이러한 자긍심은 물질이 만들어 낸 자긍심과 달리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또한 어떤 혼란이나 불확실성에도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힘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힘이라고 생각된다.

社說

전남권 의대 설립 논의 조속히 재개해야

전남 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논의가 실종됐다. 지난해 당정이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의 의사단체 반발에 밀려 '원점에서 재검토'로 뒷걸음질한 이후 전혀 진척이 없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 정부에서도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신설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파업까지 불사하며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두 달 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해당 정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후 최근까지 일곱 차례나 의정협의체가 열렸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안건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단체의 끈질긴 반대 탓이다. 애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가장 호응했던 지역은 전남이다.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 전남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 1990년부터 의과대학 유치 운동을

졸기차게 펼쳐 왔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의대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도 집권 후에는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도 기대만 키웠다가 또다시 무위로 돌아가는 양상이다. 이에 전남도 등 지자체는 꺼져 가는 불씨를 살려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엇그제 목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전남은 고령자와 도서 지역이 많고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며 전남권 공공 의대 설립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전남의 취약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을 받은 의사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수적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계와 의대 신설 논의를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조한 백신접종 예약률 특별 대책 마련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60-74세 고령층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률이 50%를 넘겼다"고 발표했다. 이대로 간다면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 접종 목표치 75~80%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통한 일상 회복이 이 같은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늦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을 보면 대상자 947만여 명 중 예약자 505만여 명으로 53.3%에 불과하다. 또한 6월 말까지 1300만 명에 대한 백신 1차 접종 완료율 목표도 삼고 있지만, 지금까지 누적 1차 접종자는 377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이 겨우 7.3%에 그치고 있다. 저조한 접종률은 지난해 독감 백신 상온 노출과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도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등이 과장 보도되면서 백신 접종을 꺼리

는 사람이 늘고 있다. 앞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인센티브 도입을 좀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2주 격리 면제나 다중시설 이용 및 사적 모임 제한 완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함께 당국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유인책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여기에 인터넷을 다루기 어려운 노년층을 위해 접종 예약을 손쉽게 하는 편의도 제공해야 한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겠지만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 등 교차 접종 허용도 백신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차 접종이 안전한 것은 물론 면역 효과가 더 높다는 최근 스페인의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이다.

無等鼓

'사고 싶은 컬러 팔리는 컬러' (2019)라는 책이 있다. 색상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이 담겼는데, 컬러 컨설턴트 이호정이 미국 ABC뉴스에서 방영된 실험을 소개하는 대목도 그중 하나다. 아무 맛이 없는 젤리에 빨강·노랑 등 여러 가지 색상을 첨가해 아이들에게 맛을 보게 하는 실험이다. 아이들은 빨간색 젤리에서는 딸기와 체리 맛이 나고, 노란색 젤리에서는 레몬 맛이 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사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인간의 뇌가 빨강은 단맛에, 노랑은 신맛에 연계해 반응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라는 분석이다. 시각은 인간이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감각이다. 대략 80%를 시각에서 얻는데, 그것의 80% 또한 색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수십 마디 말보다도 색상은 더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스타벅스 로고는 바다의 여신을 상징하는 초록이며, 세계적인 음료 콜라는 캐러멜이 첨가된 검정색이 브랜드인 것은 모두 색의 심리와 연관돼 있다.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장성 황룡강을 찾았다. 안개초와 금영화 등 10여 송이 꽃

들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인 강변의 풍경은 장관이었다. 가을이면 코스모스와 국화에 덮여 노란색 물결을 이루는데, 용의 전설이 깃든 황룡강은 생명과 정취를 품은 강으로 변신한다. 외국에서도 색 마케팅은 오래 전부터 중요한 전략으로 부상했다. 그리스의 산토리니는 하얀 배경에 파란색이 인상적이며, 독일 베를린은 회색의 도시로 유명하다. 세계적인 색채 기업 팬톤은 2020년 올해의 색으로 '클래식 블루'를 선정하면서 '안정적 기반을 지니고 싶어 하는 우리의 염원에 부응하는 컬러'라고 설명했다. 색상이 언어를 넘어 상품의 가치를 상징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장성은 황룡강변을 중심으로 전국 최초의 컬러 마케팅을 시도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해마다 5월이면 황룡동 축제에 맞춰 열리는 꽃 잔치를 올리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열지 못했다. 그래도 '엘로우 시티'를 표방한 창의적 접근은 그렇게 아름다운 '꽃강'을 낳았다. 바야흐로 색상이 자원이 되는 시대다.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